

문법 지엽 & 출제 포인트 60

1. 비분절 음운도 최소대립쌍 적용 ex) 신체부위 눈과 내리는 눈
2. 비음, 유음, 모음은 올림소리, 나머지는 안올림소리
3. 혀의 높이가 높은 모음일수록 입 적게 벌어짐
4. 반모음은 음절 이루지 못함
5. 이중모음에서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 변화양상
6. 음절은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7. '아이 양육'에서 모든 글자는 초성이 없음
8. '양vs향'은 최소 대립쌍 불가, '원vs운'은 최소 대립쌍 가능 → 최소대립쌍은 음절 구조가 같아야함
9. '맛있다, 멋있다'의 표준 발음은 [마딕따, 머딕따] 단 [마싯따, 머싯따] 허용
10. ㄱ, ㄴ 뒤에 연결되는 ㄹ이 ㄴ으로 변하는 현상은 비음동화가 아니라 'ㄹ의 비음화' ex) 백리[백니→뱅니]
11. ㄲ, ㄸ, ㅃ 등은 ㄱ+ㄱ, ㄷ+ㄷ, ㅈ+ㅈ의 축약형이 아님
12.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등은 조음 방법의 변화
13. 구개음화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것임
14. '꽃히다'는 평가원 피셜 not 구개음화 but 축약
15. 자음끼리의 조음위치 동화는 일반적으로 표준발음 아님
16.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과 자음군 단순화(탈락)은 다름
17. 'ㄹ 탈락'이 용언 활용에서 일어나면 규칙활용임
18. '않은'은 ㅎ 탈락, '않는'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남
19. '물약'에서 첨가되는 것은 'ㄹ'이 아니라 'ㄴ'임
20. 'ㄴ' 첨가, 사잇소리 현상 등은 항상 규칙적으로 일어나진 않음
21. '소리대로 적기 vs 어법대로 적기' 구분
22. 접미사 '-이', '-음/-ㅁ', '-히' 등 붙을 때 원형 밝혀 적는지 여부
23. 어간의 끝음절 '하'는 올림소리 뒤에 붙으면 거센소리로 줄일 수 있고 안올림 소리 뒤에 붙으면 아주 줄어들 수 있음 ex) 간편하게→간편케, 흔하지 않다→흔치 않다, 생각하건대→생각건대, 익숙하지 않다→익숙지 않다 등
24. 보조용언 붙여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구분
25. 경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 안함
26. 형태소의 기본형이 정해지는 기준
27. 의존명사를 표현하여 명사가 하나의 형태소면 그건 자립형태소이자 실질형태소
28. 모든 형식 형태소는 의존형태소
29. 직접 구성요소 파악 및 합성어, 파생어 구분
30. 접사가 붙으면 새로운 단어, 어미가 붙으면 기존 단어 활용형
31. '착한 짓지는 밥을 먹는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으로 볼 수 있음
32. '들'은 접미사, 의존명사, 보조사 등으로 쓰임
33. 재귀칭은 3인칭에만 쓰임 ex) 오디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O) 너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X)

34. '누구'는 미지칭(who)일 때도 부정칭(whoever)일 때도 있음
35. '다른'은 관형사(other)일 때도 있고 형용사(different)일 때도 있음
36. 부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 격조사도 불지 않음
37. '화반이 6수생이 된다.'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 아님
38. '학교에서 소풍을 갔다.'에서 '에서'는 주격 조사로 쓰임
39. '와/과'의 접속 조사& 부사격 조사 구분
40. '은/는'은 어디서 쓰이든 보조사
41. 불규칙 활용에서 어간 어미의 변화 여부
42. '메마르다, 헛되다' 등은 접사의 결합으로 품사가 바뀐 예시
43. 서술어의 자릿수 구분하기 & 자릿수 변화
44. 체언은 관형어가 될 수 있으나, 부사가 체언을 꾸며줄 때 그것이 관형어인가 부사어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림 ex) 너가 바로 범인이다. → 바로는 관형어? 부사어?
*일반적으로 부사는 부사어만 될 수 있다는 관점이 우세한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음
45. 필수적 부사어와 일반적 부사어의 구분
46. 부사 '없이, 같이, 달리'는 부사절을 이끌 경우 서술성 있음
47. 대부분의 문장은 종결어미가 있고, 이 종결어미를 통해 상대높임 실현됨
48. '내가 책을 읽는 중 큰 소리가 났다.'라는 문장에서 '-는-'은 현재형 어미지만(상대시제) '책을 읽다'라는 행동은 과거에 일어남(절대시제)
49. 청유문에서 언급하는 행위는 꼭 청자와 화자가 함께 하는 것은 아님 ex) 나 공부 좀 하자. (화자의 행동만) 발표자는 목소리 크게 해서 읽자. (청자의 행동만)
50. '계시다'는 직접높임어휘, '있으시다'는 간접높임어휘
51. '드시다'는 '잡수시다'와 달리 선어말 어미 '-시-' 존재
52. '-았-/었-'은 미래의 일 나타낼 때도 쓰임 ex) 년 뒤졌어.
53. '-어지다'는 일반적으로 접사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뻐지다, 슬퍼지다' 등은 표제어로 사전에 등재됨
54. '놀리다'는 주동사로 쓰일 때도 사동사로 쓰일 때도 있음
55. 이중 사동은 비문법적 표현이다/아니다 두 가지 의견 모두 존재
56. 모순/정도/방향 반의어 구분,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반의어 가능
57.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구분, 중심적 의미 vs 주변적 의미 구분
58. 중세 국어 8종성법은 표기규정, 현대 국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발음규정
59. 어두 자음군의 흔적이 남은 단어 ex) 좁쌀, 입때
60. ㅎ종성 체언의 흔적이 남은 단어 ex) 암탉, 수컷